

영춘향교의 역사

I. 영춘향교의 창건과 이건

1. 영춘향교의 창건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 유학(儒學)을 진흥하고 사자(士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조선초 설립된 이래, 근대적 교육기관이 들어서기 이전까지 관학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주도하였다. 고려시대에도 향교는 존재했으나 일부 군현에 국한되어 있었고, 제도 자체도 치폐를 거듭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향교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일읍일교(一邑一校)’ 원칙에 따라 모든 군현에 설립되었으며, 1894년 까지 그 제도가 지속되었다.

영춘향교는 1399년(정종 1)에 창건되었다.¹⁾ 정종조에 영춘현의 감무로 온 권소(權昭)가 중심이 되어 영춘향교를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창건 당시 영춘향교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현재 영춘향교는 영춘면 상리 461번지에 위치한다. 그러나 영춘향교는 조선 초기 최초의 창건 위치에서 이후 이건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원래의 위치는 따로 있다. 영춘향교 위치에 대한 최초 관찬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발간) 영춘현 향교조에는 향교의 위치가 ‘재현 북이리(在縣北二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춘향교에서도 영춘현 치소에서 북쪽으로 약 2.5리 떨어져 있는 상 2리 느티마을을 창건위치로 전하고 있으므로 느티마을이 최초의 창건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창건위치(태화산 아래, 상 2리 느티마을)

다만, 14세기 말에 건립된 향교는 후대와 같이 정형화된 모습도 아니고, 대성전이 모두 갖추어져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향교의 건물도 초가집인 경우가 많았다. 영춘향교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성종 조(1469-1494)에 이르러서야 각 지역의 향교가 규모를 갖추면서 점차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

1) 「구향교이건기(舊鄕校移建記)」 현판 : 1664년 7월 현감 서한주(徐漢柱) 기.

2. 영춘향교의 4차에 걸친 이진

1) 1614년 남천(南川)으로 1차 이진

그런데 창건위치인 현의 북쪽 2리에 위치한 느티마을은 향교가 들어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14년 4월 이준(李峻)이 지은 「구향교중창기(舊鄕校重創記)」²⁾에 의하면

(향교가 창건된) 땅이 구석지고 경사가 심하며, 규모가 좁고 누추하고, 풀이 나서 폐허가 되니 선비들이 학업을 익힐 곳이 없었다. 고령 신후(申侯, 신득자)가 와서 둘러보고 부모(父老)들을 모아 말하기를 “학교는 교화의 근본인데 지금 황폐함이 이와 같으니 글을 읽는 소리가 없음이 당연하다. 이런 때 내가 학교를 열어 개척하지 않으면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기르는 뜻이 아니다.” 하고 남천(南川)의 위에 땅을 정하니 여러 산이 에워싸고 강물이 안고 흘러 맑고 빼어난 빛이 있었다. 후(侯)가 이진하기로 결의하고 고을 사람 박봉수(朴鵬壽)에게 위촉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날을 가려 일을 시작하니 목공들도 잘하고 목재도 좋았다. (그리하여) 대성전·동서무·명륜당·재실·주방·문·담장까지 세웠다.

이에 의하면 창건된 위치가 지형이 협소하고 경사가 심하여, 영춘현감 신득자(申得滋)³⁾가 1614년(광해군 6)에 창건위치인 현의 북쪽 2리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남천(南川, 현재 남천 2리 대어구)으로 1차 이진하게 된다. 대어구는 창건위치보다는 땅이 평평한 편으로 향교가 들어서기 알맞았다. 이진 당시 영춘현 사람 박봉수(朴鵬壽)에게 일을 전담시켰으며, 전훈도(前訓導) 구낙래(具洛來)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진 된 해인 1614년(광해군 6) 사헌부에서 영춘현감 신득자의 과도한 징수로 백성들의 원망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향교가 이진된 해의 일기기에 향교 이전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단양군수를 지냈던 이준(李峻, 1560-1635)이 1614년에 지었으며, 1835년에 현판으로 판각하였다. 현판은 현재 영춘향교 명륜당에 걸려있다. 이 현판의 내용은 이준의 문집인 『창석집』에도 「영춘향교 중수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 신득자(1569-1637)의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익오(益吾)이다.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玄岩里) 출신으로 용출재(用拙齋) 신식(申湜, 1551-1623)의 아들이다. 1617년(광해군 9) 9월 1일 실록기사에 “영춘현감(永春縣監) 신득자는 각별히 군기와 군량을 마련하였으니, 가자해 주도록 하라”는 기사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614년부터 1617년까지 영춘현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수 충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忠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역임하였으며,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증직되었다. 묘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에 있다.



그림 2 1차 이진 위치인 남천 2리 대어구 전경

2) 1660년 화산(華山)으로 2차 이진

그런데 이진한 남천은 땅이 평평하기는 하지만 지대가 낮아 잦은 홍수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1664년 영춘현감 서한주(徐漢柱)⁴⁾가 지은 「구향교이진기(舊鄕校移建記)」 현판에 의하면 “향교 이진 후 계속 수재를 만나 1623년에 향교의 재실이 물에 잠기고, 1647년에 홍수가 나 향교 대성전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다행히 고직(雇直)과 학생들이 (위패는) 영춘현의 관청에 옮겨 봉안했으나, 또 1659년에 홍수가 나 담장이 허물어진 것이다. 이에 영춘현감 박승고(朴崇古)⁵⁾가 이를 걱정하여 상부 관청에 상신하기에 이른다.

1660년 『학교등록(學校謄錄)』 4월 8일조 기사에 영춘현감 상신에 따라 현지를 살핀 충청감사 오정원(吳挺垣)의 장계가 실려 있다. 이 장계에 의하면

“신이 순찰차 영춘현에 도착하여 현지를 살펴보니 그 향교가 객사 앞 여염집 사이에 끼어 있는데 저습하고 비좁아 학공의 모양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세가 낮아 강어귀와 아주 가까워 매년 장마에 물이 범람하여 계단까지 차고 홍수가 나면 강물이 불어나 대성전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 지금 이렇게 이진을 청원하는 것은 풍수설 때문이 아니니 혜조로 하여금 복계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향교 이진을 청하였고, 예조와 왕도 윤허하고 있다.

4) 서한주(1622-1689)의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자는 군석(君石)이고, 호는 복재(復齋)이다. 선무랑(宣務郎) 서정지(徐挺之)의 아들이다. 조익(趙翼)과 김집(金集)의 아래에서 학문을 배웠다. 1646년(인조 24)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문학과 효행으로 친거되어 1653년(효종 4)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고, 1662년(현종 3) 사도시주부(司導寺主簿)에 올랐다. 이후 1662년-1668년까지 영춘현감을 역임했다. 1668년 이후에는 공조좌랑을 거쳐 여러 주와 현의 수령으로 나가 치적을 쌓았으며 부평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에까지 올랐다.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송시열(宋時烈)에게 학문을 인정받았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충청도(忠淸道) 천안(天安)의 육현사(六賢祠)에 제향되었다.

5) 박승고는 1654년부터 1660년까지 영춘현감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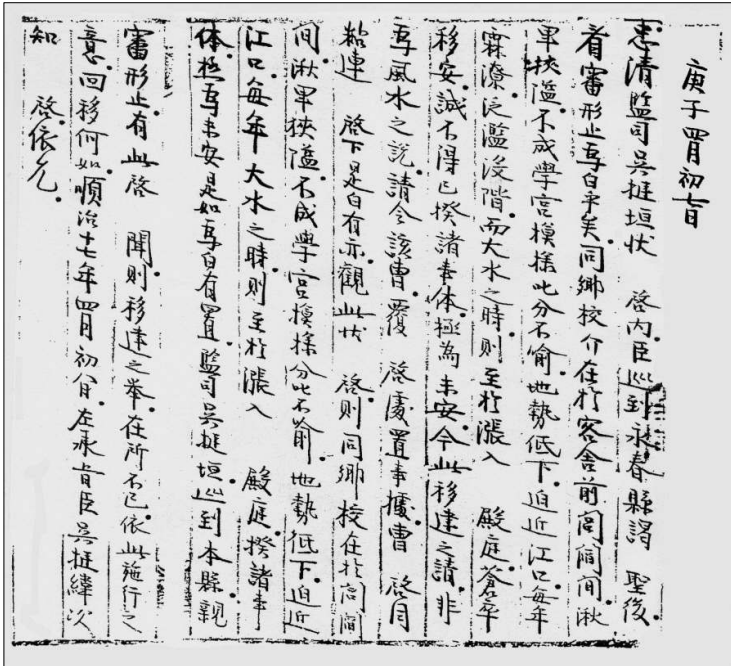


그림 3 1660년 4월 7일조 『학교등록』 기사

1659년에 단양군수로 부임한 홍석기(洪錫箕) 역시 「영춘향교이건상량문(永春鄉校移建上樑文)」⁶⁾에서 ‘(영춘향교는) 지세가 지나치게 낮으니 일출을 보기 어렵고, 구석지고 경사가 심하며, 물이 들어오고 물결에 나무까지 뽑히는 일이 많았고, 건물이 물에 침해’ 이건이 필요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2차 이건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정황이 영춘현감 서한주가 지은 「구향교이건기」⁷⁾에 잘 나타나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현의 북쪽 몇 리 되는 곳(영춘면 오사리 화산골 추정)에 새로운 터를 얻어 1660년 가을에 대성전과 동서재·문루·주고(廚庫)를 옮겨 세우게 되었다. (현감 박승고가 진행하던)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현감 유명익(兪命益)이 뒤를 이어 와서 공사를 마쳤다. 내가 (영춘현감 서한주) 뒤를 이어 와서 알현하고 보니 궁화산(肯華山) 푸른 벽이 앞에 보이고 건너 여러 봉우리를 봄에, 봉우리가 여기를 향하여 읍을 하는 듯 하고 아래로 긴 강이 보이니 영구히 편안한 장소가 될 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현감 박승고(朴崇古)가 중심이 되어 1659년(효종 10) 공사를 시작하여 1660년에 현감 유명익⁸⁾이 공사를 마무리 하여 대성전과 동서재·문루·주고(廚庫)를 화산(현 영춘면 오사리 화산골)로 이건한 것이다.

6) 『만주유집(晩洲遺集)』 권 7.

7) 「구향교이건기」는 현판으로 영춘향교에 남아있는데 1664년 서한주가 기하였고, 밑에 1751년 유명응의 추기가 있다.

8) 유명익(1617-?)의 본관은 기계이고, 1660년(현종 1)에 부임하여 2년 2개월 동안 재직하였다. 이후 형조좌랑·경산현령·함양군수·공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그림 4 2차 이건 위치인 오사리 화산골 전경

3) 1705년 현의 동쪽 1리로 3차 이건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이 건한 향교도 50년이 채 되지 못하여 문제가 생겨 1705년 오사리 화산골에서 현의 동쪽 1리로 이 건한다. 이러한 사정이 1707년 「향교이건기(鄉校移建記)」 현판⁹⁾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현의 북쪽 5리 쯤에 있었던 화산골은 뒷산이 가깝고 가파르기 때문에 큰 비를 만나면 흙이 붕괴되기 쉽고, 앞에는 강물이 비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면 사람들은 건너는데 장애”가 되었다. 때문에 “현감 박세집(朴世集)¹⁰⁾이 부임하였을 때 고을 사람들이 향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여, 박세집이 “위에 알려져 허락을 받고 이곳에 터를 정하였으나 미처 일을 경영하지 못하고 전직”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천(鄭濬)¹¹⁾이 영춘현감으로 다시 와서 1705년 8월 3일 대성전을 지었다.” 이 건 공사는 “고을 사람 남두명(南斗明)·유정방(劉定邦)¹²⁾ 등이 도맡아 감독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1757)에도 “재현 동1리, 대성전 6칸·명륜당 6칸·존기고 3칸”으로 기록하고 있어 3차 이 건된 향교의 위치와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로 3차 이 건 된 곳이 현재 향교에서 동쪽으로 겨우 50여 m 올라간 곳으로 영춘향교에서는 전하고 있다.¹³⁾

9) 「향교이건기(鄉校移建記)」, 1707년 정천 기, 1811년 유명응 추기.

10) 1698년-1703년까지 영춘현감을 지냈다.

11) 정천(1659-1724) 본관은 연일(延日)이며 자는 장원(長源), 호는 첨의당(瞻依堂)이다. 숙종 때 좌의정을 지낸 외삼촌 민정중(閔鼎重)에게 학문을 배웠고, 1684년(숙종 10)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1689년 기사환국 등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로 대과(大科)를 단념하였다. 그 후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기사환국 후 스승 송시열을 유배지까지 따라가 모셨다. 1696년 왕명을 받아 장녕전참봉(長寧殿參奉)이 되었으며, 이어 동몽교관·영춘현감(永春縣監)·공조정랑·금천현감(衿川縣監) 등을 지냈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현손으로 『송강가사(松江歌辭)』 하권에 1698년(숙종 24) 그가 쓴 발문(跋文)이 있다.

12) 유정방(劉定芳, 1635(1629)-1714)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중용(仲隆) 또는 중웅(仲雄)이다. 1635년(또는 1629년) 가선대부(嘉善大夫) 중추부사(中樞副使)를 지낸 유치량(劉治亮)의 아들로 태어나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을 지냈다. 영춘면 유암리에 묘가 있다.

13) 1925년 영춘향교 직원을 지낸 엄성현씨의 전언을 현 영춘향교 장의 엄병기씨가 전하였다.



그림 5 3차 이진된 현 영춘향교 윗편의 향교터

4) 1791년에 현재의 위치로 4차 이진

그러나 100년이 지나지 않은 1791년(정조 15)에 이르면 이진한 영춘향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리하여 바로 옆의 현재의 위치로 옮겨 건물을 새로 지었다. 현감 정해영(鄭海永)이 현 위치 이진을 주도하였다.¹⁴⁾ 1872년 제작된 『조선후기지방지도』 「영춘현」에도 향교가 역시 동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규모도 나타나 있다. 1705년 이진된 위치도 ‘재현동일리’로 향교의 제보와 같이 향교 위치가 크게 바뀌지는 않은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영춘향교의 경우 산이 많고, 물길이 큰 지형의 특성으로 4번이나 향교를 이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5) 조선후기 영춘향교의 연이은 중수

1791년 후 향교 이진은 없었으나, 향교의 크고 작은 중수는 이어진다. 먼저 1811년(순조 11) 현감 임연호(林淵浩) 때에 대성전·명륜당·문루·재실을 중수하였다. 중수비용은 영춘현 사람이 향교중수를 위하여 재물을 모아 이자를 취하여 여러 해 동안 경영하여 충당하였다. 중수 당시 영춘현 사람 유명응이 이진을 감독하였는데, 1811년 봄에 일을 시작하여 3개월 만에 공사가 끝이 났다.¹⁵⁾

1859년에는 현감 김재성¹⁶⁾이 향교의 교수 유만순(劉萬淳)과 2-3명의 선비를 시켜 향교재산 180냥과 소나무 범칙금 50냥, 고을에서 부조한 160냥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대성전·명륜당·풍화루·재실주방·문담장을 중수¹⁷⁾하게 하였다. 중수는 1859년 2월에 시작하여 4월에 마무리를 하였다.

1868년-1870년에는 현감 박규동이 향교를 중수¹⁸⁾하였으며, 1886년(고종 23)에는 현감 이

14) 향교중수기(鄉校重修記, 1978년, 전교 김종혁 기) 현관 “... 지금부터 192년 전 정조 신해년에 현감 정해영(鄭海永)씨가 현 위치에 옮겼으며 ...”.

15) 「영춘향교중수기(永春鄉校重修記)」, 신미년(1811년) 6월 수령 임연호(林淵浩) 기.

16) 1858년-1861년까지 영춘현감을 지냈다.

17) 「향교중수문(鄉校重修文)」 1859년 4월 하순 영춘현감 김재성(金在聲) 기.

효규가 중수하였다. 1891년에는 현감 이민규¹⁹⁾가 도유사 유관순(劉寬淳)에게 맡겨 대성전·명륜당·신문·동서재·고직간·풍화루를 중수²⁰⁾하였다.

1894-5년 갑오개혁에 따라 영춘향교 역시 교육의 기능이 없어지고 제향의 기능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크고 작은 중수는 이어진다. 1898년 현감 최문환(崔文煥)이 대성전과 신문(神門)을 보수²¹⁾하였다.

이후 일제시대에 이르러 1921년 화재로 대성전 밖에 있던 누각인 풍화루가 전소되었다. 풍화루는 봄가을의 석전(釋奠)을 지낼 때와 초하루 보름의 분향(焚香)할 때에 여러 선비들이 출입하는 곳이었다. 1925년 군수 김경배(金莖培)가 직원(直員)과 임원들로 더불어 풍화루를 중수할 방법을 상의하고, 일금 2백 환(圓)을 지불하고 영춘의 많은 선비들이 돈을 내어 중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대성전·삼문·주방만이 중수²²⁾되었다. 이후 풍화루는 재건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6년 전교 나성원의 성금으로 외삼문 재건²³⁾되었다. 1971년 단양군수 지종원이 70만원이라는 공사비를 조달하여 4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8월에 명륜당이 중수²⁴⁾되었다. 1977년-1978년 전교 김종혁(金鍾赫)이 군비 180만원을 보조받고 유림제현의 헌성금으로 중수하였다.²⁵⁾ 1981년 도비를 받아 중수하였으며, 12월 26일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되었다.

II 영춘향교의 운영

1. 영춘향교의 교육

1) 교관(敎官)

조선초기부터 지방의 각 향교에는 중앙으로부터 교관이 파견된다. 고려 말에는 부와 목의 고위 행정관부에만 중앙에서 교관을 파견하였으나, 조선 건국 이후 국내 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1416년(태종 16) 이후에는 도호부 이하에도 교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관 책임자의 확보가 용이치 않았기 때문에 세종 조까지도 호수가 500호에 미치지 않는 고을은 자체적으로 교도직(敎導職), 또는 학장(學長) 등의 이름으로 재지(在地) 신분의 생원(生員)·진사(進士) 중에서 선발하여 교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영춘현의 경우에도 호수가 500호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세종 조까지는 중앙으로부터 교관

18) 1891년, 「향교중수기」.

19) 1892년-1893년까지 영춘현감을 역임하였다.

20) 1891년 「향교중수기(鄉校重修記)」, 현감 이민규(李敏奎).

21) 1898년 「향교제향비갱수정절목서(鄉校祭享費更修整節目序)」.

22) 「향교중수기(鄉校重修記)」, 1925년 8월 전직원 조종극(趙鍾極) 근기.

23) … 영춘향교는 늪대(訥臺)에 옮겨다가 다시 군 북쪽의 이 땅에 옮기니 지금까지 2백여 년이 되었다. 향교의 오른 쪽 뜰에 누각이 있었으니 풍화루(風化樓)라고 한다. 불행히 화재를 만났다. 전 직원(直員) 조병추(趙昞樞) 씨가 바깥 삼문을 세웠는데 비바람이 몰아쳐 금년 봄에 또 무너지는 폐단이 있었으니 차마 볼 수 없었다. 지금의 전교 나승원(羅承元) 씨가 아래에 있는 방명록의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여 성의를 표하여 입금시켜서 다시 세워 복구하니 … (「三門重建記」, 1966년 5월, 金演海 근서)

24)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 1971년 8월 20일, 영춘향교 전교 유재인(柳在仁).

25) 「향교중수기(鄉校重修記)」, 1978년 8월 15일. 전교 김종혁(金鍾赫) 서.

이 파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영춘현 자체에서 현내의 생원과 진사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교관의 업무를 맡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관은 조선 초기에 수차의 정비과정을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1484년 발간)에 보면 부·목·도호부에는 종6품인 교수가 군·현에는 종9품인 훈도가 파견되도록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영춘현에도 1484년 이후에는 훈도(訓導)가 파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인 영조 때의 『속대전(續大典)』(1688년 발간)에서 향교의 모든 교관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유능한 학도들은 강학능력을 상실한 향교를 멀리하고, 서원·서당·정사 등 사학기관을 찾게 되었다.

향교는 이제 문묘의 향사를 하는 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고, 지방 양민들의 균역을 피역하는 장소로 전락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향교의 강학기능을 회복하고자 지방관은 따로 양사재(養士齋)·흥학재(興學齋)·육영재(育英齋) 등을 향교 부속으로 건립하기도 하였고, 1886년에는 향교의 재정으로 관학원(官學院)을 설립하도록 지시하여 3인의 훈장을 두고 강학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그 지속기간은 물론 성과도 크지 않았다.

2) 교생(校生)

조선시대 향교의 교생은 군현별로 액수가 정해져 있었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생도조(生徒條)에 의하면 부·대도호부·목은 각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영춘향교의 교생은 30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0명이라는 교생의 정원은 법적으로 16세부터 국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되는 숫자이다. 따라서 16세 미만인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향교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이들이 이른바 ‘동몽(童蒙)’들이다. 따라서 영춘향교 역시 30명의 국역대상 교생정원 외에 다수의 동몽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생들의 교육연한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다. 군액(軍額)의 대상이 부족할 경우는 연령의 상한선을 20세까지 제한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40세까지는 향교에 머무르며 학생신분을 허락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으나 유교교육은 양인(養人)과 교화라는 양면적 목표를 가지고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는 개국 초부터 국역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라도 누구나 독서를 원하면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던 것이다.

다만 16세기에 와서 실록에 ‘교생은 양반이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이 보이는 것은 이 시기에 조선왕조의 신분제적 편제가 강화되는 것을 배경으로 상위신분의 양반이 유교교육에 보다 전력하여야겠다는 명분적인 뜻이 강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양반신분층의 배타적인 교육기회의 독점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생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개국 초부터 이른바 양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으며, 16세기 이후 강화 양반신분 중심의 사회체제 속에서도 교생은 평민들이 상당수 점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동재(東齋)·서재(西齋)로 기숙사의 구별을 나타내기도 하고, 액내(額內)와 액외(額外)로 양반과 평민 교생들을 구분하였다.

영춘향교 역시 조선시대에 서재가 존재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다수의 평민 교생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단 교생이 되면 그들의 사회신분이 양반이건 평민이건 법제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군

역의 문제라든지, 과거시험을 응시하는 자격을 얻는다든가 하는 점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었다.

즉 향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생원·진사시험 회시에 직접 응시하는 특전을 부여받거나 일강(日講)·월과(月課)에 우등한 자는 호역(戶役)을 면제받는다든지 할 때, 다만 교생이라는 신분만이 요구되는 것이지 양반이나 평민이냐는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교생들의 신분구성이 다양하였던 관계로 나중에 그들의 직업선택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생원·진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에서부터 역학생도(譯學生徒)와 각사(各司)의 이서직(吏書職)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는 길이 있었다.

3) 교육과정(教育課程)

조선시대 영춘향교는 훈도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다. 향교는 시문(詩文)을 짓는 사장학(詞章學)과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經學)을 교과내용으로 한다. 경학은 소학(小學)·사서오경(四書五經, 논어·맹자·중용·대학·시경·서경·역경·춘추·예기) 뿐만 아니라 사서(史書)를 함께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향교에서는 교과서로 근사록(近思錄)·제사·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례를 주로 교육하게 된다.

교수방법은 성균관(成均館)이나 사학(四學)과 같이 개인별로 강을 통하여 학습을 지도하였다. 『경국대전』 장려조에는 “교생으로서 독서한 일과를 매월말에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순행하여 고강(考講)하고, 영에 따라 권장함을 문부(文簿)에 기록하였다가 교관이 전최(殿最)할 때에 그의 월과·일강을 빙고하여 우등한 자는 호역(戶役)을 헤아려 감한다”라고 하여 향교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찰사의 고강에 낙강한 교생은 교생신분을 박탈당하였다. 양관 이후에 등장한 납속면강첩은 고강을 통하여 교생으로부터 박탈되는 것을 납속으로 면제받고자 한 것이었다.

또 모든 관찰사는 도내 교생을 골라 매 6월에 도회소를 열어 문관 3명을 보내어 강론과 제술로써 시험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계문하여 생원진사 복시에 응할 자격을 주었는데 그 추천 인원은 충청·전라·경상의 3도는 각 5명씩이며 그 외도는 각 3명씩이었다.

대부분의 향교는 교육용 서책의 부족을 심하게 겪었고, 이는 향교교육 자체를 곤란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영춘향교 역시 1898년 영춘현감 최문환(崔文煥)이 서한 「향사절목서(享祀節目序)」에서 “이 향교에는 일찍이 경서와 제자백가의 책과 문집 등을 비치한 것은 대체로 선비를 기르기 위함인데 근래에 와서 산질(散帙)이 되어도 찾아 모으지 않으니 ... ”라고 하여 교육용 서책의 부족을 기록하고 있다.

4) 흥학정책(興學政策)

조선중기에 들어서면서 향교 교육은 서원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향교흥학에 관하여 여러모로 신경을 쓰게 된다. 영춘향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등록』 인조 19년(1641) 7월 3일·10월 8일 기사에 보면 이러한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 7월 3일 기사를 보면 영남과 호남에 비해 특히 충청도의 향교에 양반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 학교가 퇴폐(頹廢)하고 사풍(士風)이 아름답지 못하니 군현의 양반 자체를 정원과 상관없이 향교에 입학시키라는 충청감사의 장계가 실려 있고, 왕이 이를 허락하고 있다. 즉 영춘

향교 역시 당시 양반자제가 많이 입학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영춘현의 양반자제를 향교 정원과 상관없이 무조건 향교에 입학시키라는 명이 떨어진 것이다.

그해 10월 8일 기사에는 향교의 교수와 훈도가 형식적이어서 향교생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지역에서 그 문장과 행실이 구비된 자 1인을 가려 교장으로 뽑아 그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여 교생들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청하는 충청감사의 장계가 실려 있고, 역시 왕이 허락하였다. 영춘향교 역시 영춘현에서 문장과 행실이 좋은 사람을 가려 향교의 교장으로 삼아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말 향교의 학문적 위상은 더욱 하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영춘향교 역시 다른 향교와 마찬가지로 향교 흥학 정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유서로는 명륜당에 있는 1871년(고종 8) 충청관찰사 권상신에 의하여 개관된 제향교(題鄕校) 현판을 들 수 있다.²⁶⁾

이 현판은 1871년 공주유학 정인채(鄭仁采)와 청주유학 맹흠호(孟欽昊), 홍주유학 이주한(李柱漢) 등이 회덕·전의 등 충청 좌·우도 13읍의 사립들과 연명으로 감영에 상서하기를, 모재 김안국이 관찰사로 소학 보급과 지방향교의 진흥에 큰 성업을 이루었는데, 마침 1871년이 그 때로부터 5주갑을 맞는 해이므로 이를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그 사적을 글로 새겨 남긴 것이다. 이에 충청관찰사 권상신(權尙愼)이 호서지역의 모든 향교에 이 현판을 제작 계관토록 하고, 흥학의 깊은 뜻을 천명한 것이다. 물론 이 현판이 구체적인 실효를 기약하는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매우 고무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대원군은 서원훼철 이후 유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1872년(고종 9) 흥학과 향교 운영 쇄신방안을 각 군현에 하달하였다. 한편, 호서지역에서는 관찰사 심상훈(沈相薰)의 재정지원으로 각 지역에서 흥학절목이 작성되었다. 즉 관찰사 심상훈은 1885년에 각 읍의 향교를 돌아보고 1886년(고종 23)에는 봉전 500냥을 각 읍에 획급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흥학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영춘향교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2. 영춘향교의 재정

향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수조건이 된다. 기록으로 보면 1480년(성종 11)에 전국 각 지방의 향교에 학전(學田)과 노비를 지급하였다는가, 1489년(성종 20)에 각 향교에 사서오경(四書五經)·제사(諸史)·소학(小學)·오륜행실록(五輪行實錄) 등을 배포하는 등으로 각종의 지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영춘향교의 경우 직접 관련된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

다만 학전은 『대전속록(大典續錄)』의 규정이 7결이고, 『속대전(續大典)』의 규정이 5결이다. 또 노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이 10인이므로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춘향교 역시 대체와 위와 같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1년 작성된 영춘현의 광무양안에서도 교궁전답으로 5결 96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라에서 지급된 약간의 학전과 노비로 향교 운영비를 충당하기엔 충분치 않았다. 그리하여 영춘향교에서는 1859년 향교 뒷산 소나무를 향교 재산으로 책정하여, 소나무를 베는 사람에게는 벌칙금 50냥을 징수하여 향교의 비용으로 활용하였다.²⁷⁾

26) 「제향교(題鄕校)」(1517년 관찰사 金安國, 1871년 관찰사 權尙愼 기) 현판 참조

27) ... 향교 뒷산의 소나무 숲을 상리의 백성들이 감히 개인적으로 보호하는 산이라 하여 한 포기의 풀과 한 그

또 1862년에는 흉년이 거듭 되어 향교운영비로 활용되던 계금이 흩어지자 서재의 조원국(趙元國)과 안종석(安宗錫)이 폐해를 구제할 방안을 만들어 관청에 올리고 지방 임원의 여러 사람에게 알렸다. 그러자 영춘현의 아전들이 반백 금을 준비하여 서재에 부탁하여 그 본금을 보존하고 이자를 취하여 각 가지의 용도에 대비하게 하였다.²⁸⁾

한편 1897년 영춘현감 최문환 부임 후 향교 운영의 문제점을 느끼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는다.²⁹⁾ 이는 향약절목서(1898년, 최문환 서)에 자세하다. 현감 최문환이 느낀 영춘향교의 문제점은

- 첫째, 제사 지내는 의식에 있어 희생과 술이 영성하고 제사 음식의 깨끗지 못함
- 둘째, 오르고 내리는데 순서를 제대로 하지 못함
- 셋째, 소를 잡을 때 고기는 오직 이 고을의 아전에게 나누어 보내는 일에 신경을 쓴
- 넷째, 영춘향교에 경서와 제자백가의 책과 문집 등을 비치한 것은 선비를 기르기 위함인데 근래에 와서 산질(散帙)이 되어도 찾아 모으지 않음.

이었다.

이에 현감은 절목을 만들어³⁰⁾ 향교의 운영을 일신하려고 힘쓰게 된다. 그 일신의 절목은 모두 5개 조항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성전 안과 밖 및 담장은 봄가을에 별도로 단속하여 제초를 하고 겨울에 눈 쓰는 일을 거듭 독촉할 일.

둘째, 향교의 책임자는 도유사 한 사람. 장의(掌議) 두 사람을 두되 특별히 문학이 있고 행실이 단정한 자를 가려서 공론에 의하여 추천할 일.

셋째, 향사비 4백 냥 내에 2백 냥은 관청에서 관리하여 각종 제물을 전달처럼 봉하여 올리게 하고 2백 냥은 향교에서 관리하게 하여 봄가을에 포와 쇠고기를 준비하여 제물로 올리게 할 일.

넷째, 제향 때 쇠고기로 포를 만들 때 고기를 아전에게 나누어 보내는 폐단은 번거롭고 필요치 않은 일이니 이제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을 일.

다섯째, 향교 책임자가 교대할 때는 봄가을에 금전 출납기[所用下記]는 책자를 만들어 새로 추천 된 자에게 이전할 일.

루의 나무도 향교에서 차지할 수 없다고 하여 금년 봄에 이르러 상리 사람들이 큰 소나무 10주를 함부로 베었기 때문에 소나무 범칙금 오십 냥을 징수하여 중수하는 비용에 보충하여 썼다. 향교의 뒷산을 저희가 어찌 감히 마을의 금양송목(禁養松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영원히 빼앗겨서는 안 되니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지키는 사람이 보호하는데 사고의 유무를 관가에 와서 보고할 일. (『郷校重修文』, 1859년 4월 하순, 영춘현감 金在聲).

28) 『서재모현기(西齋慕賢記)』, 1862년, 계장의(契掌議) 이영식(李永植) 근기.

29) 나는 정유년(1897)에 이 고을을 다스렸는데 가을 8월 석전대제(釋奠大祭)의 날이었다. 제사의 예를 행하는 학사들을 보니 백여 명에 가까웠다. 제사 지내는 의식을 보니 희생과 술이 영성하고 제사 음식의 깨끗지 못함과 오르고 내리는데 순서를 제대로 하지 못함이 실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더욱 심한 것은 소를 잡을 때 고기는 오직 이 고을의 아전에게 나누어 보내는 일로 힘쓰고 향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혼잡함이 마치 시골의 잔치하는 것 같아 제사를 받드는 정성스러운 예는 전혀 없었다. 이 향교에는 일찍이 경서와 제자백가의 책과 문집 등을 비치한 것은 대체로 선비를 기르기 위함인데 근래에 와서 산질(散帙)이 되어도 찾아 모으지 않으니 … 한 권의 책자를 만들어 후세의 예를 아는 자를 기다리겠다. (『享祀節目序』, 1898년 崔文煥 서)

30) 『향사절목서(享祀節目序)』 절목(節目), 1898년 최문환(崔文煥) 서.

그리고 1900년에 추록을 작성³¹⁾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추록된 절목은 3개 조항으로

첫째, 봄가을 향사 때 선비들에게 올리는 백미 54두는 향교에서 먼저 받고 뒤에 쓰되 장의에게 먼저 배분하는 일은 시행하지 말 일.

둘째, 12개월 분향하는 날 사용하는 쌀과 입재(入齋) 할 때의 반찬 쇠고기 흥정하는 일, 또는 상에 올리는 어물과 과일 등은 향교의 도지 중에 남는 것으로 차례로 준비하고 먼저 올리는 일은 이제부터 행하지 말 일.

셋째, 향교의 면세 토지[復] 5결 내에 1결은 도유사의 근무비로 지불하고 2결은 두 장의에게 근무비로 지불하고 1결 31부(負)는 봄가을 제향 때 두 담당인 수고비로 지불하고 69부는 각 재난이나 사고의 비용에 들어갈 일.

이다. 이로 인하여 영춘향교는 일신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아전에게 소고기를 아전에게 보내는 일은 1862년에 아전들이 영춘향교 계금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6 「향사절목서(享祀節目序)」 현판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향교의 교육기능이 상실되자 계전이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향교에 쓰이는 비용을 항상 학생에게 나누어 징수하는 폐해가 있자 서재생이 중심이 되어 1903년 서재계를 마련하여 향교재정으로 활용하였다.³²⁾ 그리하여 1919년 향교 재산³³⁾으로는 “위패 27위, 성적도(聖蹟圖) 2책, 대성전 6칸, 문 3칸, 명륜당 8칸, 동재 4칸, 서재 4칸, 진설소(陳設所) 3칸, 풍화루(風化樓) 6칸, 공실(供室) 12칸 등 8동의 건물이 있었고, 서책은 논어 1질, 맹자 1질, 중용 1질, 대학 1질, 시전 1질 외 7권, 서전 1질 외 5권, 주역 1질 외 7권, 강목(綱目) 61권, 한서(漢書) 27권, 팔대가 7권,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 3권, 유현록(儒賢錄) 1질, 하서집(河西集) 7권, 박정자고(朴正子稿) 5권, 사암집(思菴集) 2권, 상산김씨 과제도 1장, 고금역대(古今歷代) 2권, 삼강록(三綱錄) 3권”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

31) 「향사절목서(享祀節目序)」 경자추록(庚子追錄) 1900년.

32) 「서재계첩서(西齋契帖序)」, 1903년 4월 상순 서병조(徐丙朝)는 서문을 쓰다.

33) 1919년 12월 15일 물품 인수인계 목록(인계인 영춘군 향교 전직원 許燾, 인수인 영춘군 향교 직원 許周) 참조.

다. 또한 1934년 공사전을 구입하여 향교원들의 식사비용의 예를 정하였다.³⁴⁾

결국 1894년 갑오개혁으로 향교의 교육기능이 상실되면서 향교는 조선시대의 완비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쇠퇴일로로 걷게 된다. 특히 1910년 한일합병 이후 향교가 갖는 정치·교육·사회적 의미는 급속히 축소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현재 영춘향교는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하고 있다. 향교의 운영은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수명이 담당하고 있다.

34) 우리 영춘향교는 향사비 이외의 일반 집사(執事)와 여러 선비들의 조석 식사비용은 처음부터 정한 예가 없었으니 나는 지난 계유년(1933) 봄에 한두 사람의 동지와 함께 의론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힘에 닿는 대로 금전을 모아 몇 달이 안가 약간의 금액을 모으게 되어 176평의 토지를 구입하여 유럽에게 넘겨주어 후일 여러 선비들의 식사비용의 밑천으로 하도록 하니 선성(先聖)을 높이 받드는 도에 만분의 일 만큼이나 작은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 전말을 기록하여 참고하도록 한다.(供士田購入記, 1934, 3월 상순 직원 千莊煥); 공사전은 향교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식대를 제공하기 위한 토지. 당시에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